

고령자 전용... 한가위 부모님 효도 선물로 최고

NH협생명 (무)NH실버암보험

지난 2일 출범한 NH협생명이 최초의 고령자 전용상품인 (무)NH실버암보험 신상품을 선보였다.

출시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1만8000여건이 판매되는 등 NH협생명의 폭넓은 고객 기반을 마련할 상품으로 기대받고 있다.

(무)NH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암전용 상품으로, 대표적 고령층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가 가입이 가능한 간편심사 보험 상품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모두 없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의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 후 암 진단시에는 해당 보험기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

특히 이 상품은 별도의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 보장하는 단순한 상품구조로 개발돼 고령층 고객들의 상품 이해도를 높였다. 최고 100세 만기까지 갱신 가능하며 5년마다 가입금액의 5%를 만기보험금으로 지급해 갱신 보험료 및 건강관리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금액도 최저 500만원부터 가능해 보험료 부담도 낮았다.

보장혜택은 고액치료비 4000만원,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600만원, 소액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과부안 또는 제자리암 포함)은 200만원의 암진단비를 각각 보장한다. 보험료는 최

초계약 기준으로 남자 65세가 5만7400원, 여자 65세는 2만8800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최초 1회 지급)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남자 77.65세, 여자 84.45세로 장수시대로 진입한 반면,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암은 61세 이후에 발병률이 급상승해 80세 전후에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고혈압 환자도 가입 가능

5년마다 가입액 5% 보험금 지급

출시 일주일 만에 18000건 판매

특히 한국인 사망원인의 1위가 암이며 평균수명까지 생존 시 암발생 확률이 남자는 5명중 2명, 여자는 3명중 1명이나 되고 암치료비 또한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암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실제 이 보험은 암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고령자 보험 증가 추세에 따라 보험 출시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1만8000건이 판매됐으며 노년층이 많은 전남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4126건이 판매돼 전국판매량의 22.6%를 점유했다.

김홍주 NH협생명 총국장은 "NH실버암보험은 암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버린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버전용암보험"이라며 "과

도한 병원비 부담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효도상품으로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와 상담은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 원예농협에서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르세, 한국에 법인 설립

아시아 지역은 4번째 광주에 딜러 네트워크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세가 한국 법인을 설립,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포르세는 베른하르트 마이어 세일즈마케팅 총괄부사장이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진행된 프레스 브리핑에서 "포르세의 17번째 자회사가 한국에서 설립됐다"고 밝혔다.

포르세 코리아는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은 4번째 현지법인이 된다. 포르세는 아울러

한국 현지 법인의 대표로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세일즈 앤 마케팅 이사인 GM 코리아의 사장을 지낸 김근탁 사장을 선임했다.

마이어 부사장은 "한국은 포르세 전 모델에 걸쳐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갖춘, 아시아에서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 도입될 포르세의 신모델들과 탄탄한 고객층을 기반으로 포르세 코리아가 향후 꾸준한 성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6곳에 딜러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포르세는 앞으로 대구, 대전, 광주에 딜러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 다.

연합뉴스

금호고속 추석 임시버스 특별운행

17~22일까지 5040회 증차

금호고속이 추석 연휴를 맞아 임시 버스를 증편하고, 특별운행에 나선다.

11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17일부터 22일까지 고속버스는 총 3600회, 직행버스는 1440회 각각 증차하며 하루 평균 고속은 600회, 직행은 240회의 버스편이 늘

어난다. 승객들은 '코버스(www.kobus.co.kr)'에서 고속버스를 예약하거나, '버스타고(www.bustago.or.kr)'를 통해 광주·전남권 버스를 예약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버스예매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증편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금융지주회장 특강

임종록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1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에서 시군지부장,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임회장은 특강 후 보성, 장흥, 고흥, 화순군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농협 제공

신용카드 5장 중 1장 '장롱카드'

6월말 현재 2357만장... 신한카드 477만장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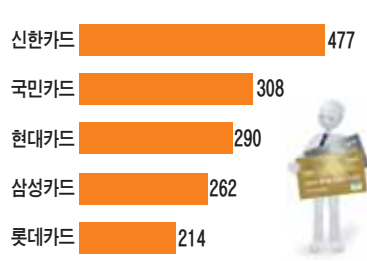
신용카드 5장 중 1장은 장롱 속에 잠만 자는 휴면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는 지난 6월 말 현재 2357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1억1534만장)의 20.4%에 달했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의 휴면 카드가 477만장으로 가장 많고 국민카드(308만장), 현대카드(290만장), 삼성카드(262만장), 롯데카드(214만장)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카드는 1년 전보다

카드사별 휴면카드 (단위:만장)



16.4%(43만장)나 급증했다. 휴면카드의 비율은 하나SK카드(29.0%), 현대카드(22.0%), 우리카드(21.5%) 순으로 높았다.

휴면카드는 2010년 말에는 3129만장에 이르렀으나 금감원의 휴면카드 일제 정비이후 지난해부터는 그나마 2300만~2400만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휴면카드 정리에 속도를 내고자 휴면 카드 자동 해지 제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가 사은품 제공 등을 통해 휴면카드 해지를 늦추게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본기 자료만 여신금융협회에 공개하는 휴면카드 공시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해지땀 연회비 돌려 받는다

금융위, 여신금융업 개정안

앞으로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고객은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은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만큼

의 연회비(카드 발급비용 등 실비 제외)를 일할 계산해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카드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따로 나누어 계산해 연회비를 반환하곤 했다.

개정안은 카드 모집자가 리빙빙 등 신용카드 관련 상품을 권유하면서 세부사항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모집자가 카드대출 '권유' 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를 등 주

요 내용을 회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한도 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빙빙 자산과 연체정보 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는 현행 '정상'에서 '요주의'로 바꿔 대출금리를 더 높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상품 설계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줄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출 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등 부수업무는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여름 휴가 결정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이운석 이유리 서경석

매주 월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IPTV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